

[사회]

전교조 연가투쟁 반대여론 '붐물'

학부모 "수업포기한 집단행동, 무책임한 처사" 비난 교육부 "엄정 대응"·법원도 "가담자 징계 정당"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방침에 반대해 22일 예정대로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다.

특히 학부모들은 "명분이야 어떻든 교사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교조 연가 투쟁 강행 = 전교조는 21일 "교육부가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내일(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연가투쟁 집회에 7천~8천여명의 교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가 투쟁에는 조합원 4천500

명인 전교조 광주지부에서 50여명, 8천명인 전남지부에서 400~500명 등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교사 500명 가량이 참가할 예정이다.

교육부 엄정 처벌 경고 =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1일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자제를 호소했다.

이들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연가투쟁 반대 여론 붐물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21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연가투쟁이나 조퇴투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

조퇴, 결근 등 3차례 이상 연가에 참가한 부적격 교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정모(44·광주시 동구 관산동)씨는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연가투쟁 징계 정당' 판결 = 교육부가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키로 한 가운데 법원이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청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이번 연가투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7부(당시 김용균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는 지난 2001~2003년 7회에 걸쳐 무단 결근과 조퇴를 하고 전교조 주최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 건책처분을 받은 유모·김모 교사가 인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건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 주요대학 입학설명회
광주대가 21일 마련한 대학설명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대학소개와 입시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대·조선대·호남대·동신대 등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도 잇따라 입학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학생 유치에 나선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태양열 등 국내외 업체 65개사 참여 광주서 '신·재생에너지展'

26일부터 DJ컨벤션센터 '2006하늘바람땀에너지전'

태양열·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2006하늘바람땀에너지전'(SWEET 2006)이 23일 광주에서 개막된다.

광주시와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26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SWEET 2006'은 같은 날 개막하는 '2006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과 동시에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회에는 국내 업체의 경우 광주의 대표적인 태양광 모듈제 조업체인 '실포니에너지' 등 45개사, 해외 업체로는 모듈제조업체 독일 '신테크닉스'·덴마크 '베스타스'·미국의 수소연료전지업체

'퓨어셀' 등 20개 사가 참가한다. 전시분야는 태양열·태양광·풍력·지열·바이오메스·수소연료전지 및 차세대 전지·해양·석탄액화가스·친환경·자원재활용·에너지 절약·고효율 등 14개 분야다. 전시회에는 또 5개국 5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하며, 2천여명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초청돼 투자상담을 맡아 준다.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은 석유관·가스관·원자력관·신재생에너지관·전기박물관 등 9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며, 대학생들이 제작한 하이브리드 차량 특별 전시회도 열린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은 광주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첨단산업과 친한 경이 어우러진 솔라시티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

"광주시청 앞 FTA 반대 집회 불법·폭력 변질뻔 엄중조치"

홍영기 전남경찰청장 기자회견
홍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2일 광주시청 앞 광장 등에서 예정된 '한미FTA 저지 시·도민 결기대회'가 폭력·불법시위로 변질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청장은 21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지역에 한미 FTA협상의 핵심 사안인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많다"며 "자칫 참가자들이 과격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고속도로 점거나 시·도청사 난입 등이 시민불편이나 행정기능 마



비를 초래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야간에 예정된 촛불집회 등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 운동본부'는 2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2만여명이 동원해 집회를 열 계획이며, 경찰은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약 1천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 드라마 촬영장 각광

'태왕사신기' 배용준 출연
日관광객 문의 전화 빗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에 자리한 '삼한지 테마파크'가 각종 드라마 촬영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나주시는 고구려 건국과 광개토태왕의 대륙정벌을 소재로 한 MBC 사극 '태왕사신기'(연출 김중화)

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삼한지 테마파크에서 촬영된다고 밝혔다. '주몽' 후속으로 제작되는 '태왕사신기'는 2007년 3월부터 24부작으로 방영되며 배용준·문소리·최민수·정진영 등이 출연한다. 특히 한류스타인 배용준이 주연으로 출연할 예정이어서 일본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벌써부터 나주시청과 해당

방송국은 일본인 팬들이 촬영장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태왕사신기'를 촬영기간 동안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촬영장 일대를 영상테마파크로 확대 개발해 고구려 역사·문화 체험공간 등 주제가 있는 테마관광지로서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에는 개장 이래 현재까지 4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소설' 지난뒤 추워져 11월 22일 (음 10월 2일) ◇전국날씨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다.

광주	차차 흐려짐	5~15℃
대전	차차 흐려짐	6~15℃
대구	차차 흐려짐	9~15℃
부산	차차 흐려짐	6~15℃
서울	차차 흐려짐	3~16℃
인천	차차 흐려짐	2~15℃
전주	차차 흐려짐	2~16℃
목포	차차 흐려짐	3~16℃
제주	차차 흐려짐	2~16℃
울릉도	차차 흐려짐	4~15℃
독도	차차 흐려짐	4~15℃
영남	차차 흐려짐	5~15℃
영서	차차 흐려짐	2~15℃
영동	차차 흐려짐	5~14℃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2:20 썰물 < 07:40
여수 밀물 < 09:49 썰물 < 03:04

▲해돋이 07:13 ▲해질 17:23 ▲달돋음 08:32 ▲달질 18:0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날씨						
최저/최고	6/14	6/14	4/16	6/15	8/12	5/13

포근한 小雪

해남 등 산간 내륙 쌀쌀
22일은 첫 추위가 몰려온다는 '소설'(小雪). 하지만 이날 광주·전남지역은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22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년과 비교하면 아침 기온은 2~3도가 높다.

전남 대부분 지역도 아침은 5~9도, 낮에는 14~16도 분포를 보이는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한 전망이다. 해남 등 내륙 산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그러나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쌀쌀해지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해남부, 남해서부 모든 바다에는 먼 바다에서 파도가 1~2.5m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설은 입동(立冬)과 대설(大雪) 사이에 드는 절기로, 옛사람들은 이때부터 '천기(天氣)가 올라가고 지기(地氣)가 내려가 하늘과 땅이 막혀서 겨울이 된다'고 했다.

첫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 겨울의 징후가 나타나는 때라는 것. '소설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인애동산, 노인요양원 조속 건립을"

'빛고을사랑모임' 회원 촉구
'빛고을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21일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애동산 내 노인요양원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회원 500여명은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천륜이다. 한편,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에는 개장 이래 현재까지 4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국내최초, 국제명품 전통잡채
결혼정보 모모

결혼정보 모모는 국내외 유명 명품 잡채를 소개하고,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다양한 결혼정보를 제공하고, 결혼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문의: (062) 223-5048 / 010-9944-0882

미래불안? **한의학**이 해결됩니다!
한 의사가 되시면 해결됩니다!

고수합성 대학원, 작정연 함병
사우스 베이 한의과 대학

www.southbay.co.kr

광주·임학설명회: 안내
11월 26일(토), 12월 3일(토)